

54세 日 프로축구 선수 미우라의 끝없는 도전



스포츠 세상

박병현
전 세계일보 체육부장

프로 경력 36년째 아직도 현역 철저한 자기 관리·노력이 비결 경기 출전 자체만으로 큰 이슈 철인으로 감동·용기의 배달자

운동선수들에게 정년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경기력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무대를 떠나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운동선수들에게는 딱히 정년이라는 단어가 없다.

운동선수들은 30세를 전후해서 전성기를 보내는 게 보통이다. 그 이후에는 내리막을 탄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순리적인 현상이다. 근력과 지구력 같은 기초체력은 저하되고, 스피드와 순발력을 포함한 체력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이러한 핸디캡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는 순전히 자기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각종 격투기나 축구 등에 너지 소모량이 많고 비교적 거친 운동일 수록 선수들의 수명은 짧을 수밖에 없다. 체력을 유지하려면 눈에 안 보이는 끊임 없는 자기 노력과 관리가 필수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지난해 11월 국내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의 공격수 이동국이 23년간 청춘을 바치고 42세의 나이로 야망없는 박수갈채를 받으며 녹색 그라운드를 떠났다. 그가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령자였기에 그의 이별에 모두가 아쉬워했다. 하지만 이동국보다 피동갑 형님뻘인 일본 선수는 여전히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다. 바로 일본 축구의 살아있는 레전드인 미우라 가즈요시다. 1967년생이니까 올해로 만 54세다.

올해도 현역선수로 등록 마쳐

미우라는 2021년에도 현역으로 J리그에서 프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가 올 시즌 재계약한 소속팀 요코하마 FC에서 얼마나 그라운드를 밟게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선수 등록을 한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50대 중반의 프로축구 선수라고 하니 선뜻 믿어지지 않을 따름이다. 전 세계 축구계에 '서프라이즈'가 아닐 수 없다.

일본 시즈오카에서 태어난 미우라는 축구 선수로 활약하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퇴하고 '축구의 나라' 브라질로 건너갔다. 일본축구협회가 자국의 축구발전을 위해 축구 유망주를 선발해 축구 유학을 보내 준 것이었다. 유학파 1세대다.

미우라가 18세 때 브라질에서 산투스, 코리치바 등 유명 프로 클럽팀에서 활약하다 일본으로 돌아온 것은 그의 나이 22세 때였다. 요미우리 FC를 통해 J리그에 연착륙한 그는 베르디 가와사키에서 전성기를 보낸다. 리그에서 192경기에 출장해 100골이라는 기염을 토한 미우라는 국제대회에서는 불운했다. 1993년 열린 1994년 미국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꺾는 결승골을 넣고도 이라크에 비겨 본선 티켓 획득에 실패했다.

1997년 프랑스 월드컵 최종 예선전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4득점을 하는 맹활약을 펼쳐 일본이 처음으로 월드컵



일본 축구의 전설 미우라 가즈요시가 아직도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올 시즌 일본 요코하마FC와 재계약을 맺었다.

무대를 밟게 한 일등공신이었지만 정작 그는 월드컵 본선에서 탈락했다. 일본 축구의 대표적인 엘리트 선수로서 일본 국가대표팀 역사상 가장 많은 득점(55골)을 올린 공격수이지만 대표팀과는 인연이 멀었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도 대표팀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한 컨에서 눈물을 흘려야 했다. 그가 대표팀으로 활약한 것은 불과 10년 정도다.

1990년대 풍미한 日 축구의 레전드

1990년대 일본 대표팀으로 활약할 당시 친하게 지냈던 한국의 홍명보, 황선홍 등은 이미 프로팀 감독을 지낸 지도 별세 10년이 훌쩍 지났으니 미우라가 아직 선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놀랍다.

월드컵의 한이 너무 짙어질까. 그는 은퇴를 온몸으로 거부하고 지금도 현역 선수로 뛰고 있다. 그는 클럽팀에서만 무려

700경기를 넘게 소화했다. 더구나 그의 포지션은 몸싸움이 심한 스트라이커다. 세계 축구사에 남을 기록이 아닐 수 없다. 이탈리아 세리에A 제노아, 세르비아의 디나모 자그레브 등 유럽 축구도 경험했다.

철저한 자기 관리와 노력이 없었다면 그가 이토록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미우라는 아들뻘 되는 선수들과 똑같이 훈련하고 경기를 해야 했다. 눈에 안 보이는 뼈를 깎는 노력과 자기 헌신에 박수를 보내고 싶은 이유다. 훈련할 때는 10대, 20대 팀 동료들과 자주 대화하고 소통한다.

나이는 결코 장애물이 아니다

미우라는 지난 시즌 J1 리그전에서 4경기, 르벡 컵(리그 컵) 2경기에 출장해 무득점으로 끝났지만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무장해 있다. 얼마 전 미국 스포츠 채널 ESPN은 "메시가 태어났을 때 그는 이미 프로축구 선수였다"고 상세한 경력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현 소속팀 요코하마 FC에서만 무려 16년째다.

국내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미우라는 '철인' '진정한 레전드' '가즈(미우라의 애칭)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등으로 많은 사람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 그는 여전히 인기가 높다. 결코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철인으로서의 감동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미우라는 경기에 출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슈가 된다. 조기 축구회도 아니고 프로축구 무대에서 50을 넘긴 나이에도 뛰는 것은 기적이 가깝다. 올 시즌에도 리그 개막을 앞두고 미우라는 구단으로부터 재계약 제의를 받았다. 물론 본인이 원

한 것도 있었겠지만 구단이 냉정한 프로 세계에서 아직도 미우라의 잠재력과 효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나이를 잊은 사나이' 미우라의 마지막 골은 2017년에 나왔다.

노장의 진정한 투혼 보여주기

나이든 선수들이 경쟁력이 충분하고 도전해볼 만한 동기가 남아있다면 나이는 장애물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그저 '기록을 위한 쇼 비즈니스'나 팀 스포츠에서 개인의 욕심만을 충족하기 위한 현역 연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미우라는 나이를 먹고 기량이 예전 같지 않지만 열정이 더 커지고 있어서 구단의 제의를 받은 뒤 조금도 고민을 하지 않았다. 그가 프로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힘과 비결은 열정이다. 그는 학창시절을 포함해 약 45년의 축구 인생을 돌아보며 남은 현역 생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몸도 마음도 선수 생활을 원했다고 했다.

그의 검은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켜고, 머리는 희끗희끗하다. 올해로 프로 생활 36년째인 미우라가 앞으로 얼마나 더 그라운드에 설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2~3년 뒤가 될 수도 있다. 현역에서 은퇴한 뒤 지도자로 뛸 생각은 추호도 없기에 그라운드에서 열정과 혼을 쏟아부으겠다는 각오다.

축구에서 공격수의 상징인 배번 11번을 여전히 지켜오고 있는 슈퍼스타 미우라가 이번 시즌에는 4년 만에 골을 터뜨려 우리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져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노장의 진정한 투혼을 보고 싶다.

인테리어 풍수, 상호보완의 '지혜'



인테리어 풍수

정완수
문학박사·풍수지리학자

얼마 전에 전자파를 막아주는 화초나 관엽 식물이 유행한 적이 있다. 필자는 전자제품이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인체에 해를 줄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직접 실험하는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었으므로 전자파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이가 공산품인 전자제품과 식물은 공간적 조화에 이보다 더 어울리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전자제품의 크기

전자제품 크기에 어울리는 화초, 시각적·심리적 안정 가져와



에 어울리는 화초를 두면 시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집안에서 식물을 키우는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해보자. 우선 정원이 있는 집이면, 거의 모든 식물이 때에 따라 꽃이 피고 번

성하므로 가정에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이는 이들이 만들어내는 건강한 양(陽)의 에너지로 인해 왕성한 활동과 좋은 사업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사군자인 국화, 대나무, 난초, 매화가 길하다고 한다.

중국의 남방에서는 밝은 빨간색 오렌지 나무를 선호하는데, 함축한 의미와 더불어 오렌지의 중국어 발음이 금(金)과 같아서이다. 따라서 새해 첫날에 오렌지를 많이 먹는 것을 매우 큰 행운으로 여긴다. 과일이 열리는 나무를 더욱 상서롭게 생각한다.

익은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는 행운과 번영의 성숙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나무들은 보통 설 전후 보름 동안 중

국 가정집과 사무실 건물의 출입구에 전시되어 새해의 풍요로운 시작을 상징하나, 제주도 서귀포를 제외한 우리하고는 다른 이야기다.

만약 우리가 정원에 식물을 기른다면, 동남부에 심으면 된다. 이곳은 부(富)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건강에 좋은 과일나무인 대추를 키우는 것은 매우 상서로운 일이다. 혹 동남쪽이 집안에서 가장 안 좋은 방향과 위치가 되더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방향성이 상징하는, 행운을 창조하기 위한 식물을 심으면 동기에 힘을 주거나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풍수는 보완하는 역할이 매우 크다. 풍수적 권고안이 서로 배치되는 경우 상대적 보완을 생각하면 해결은 어렵지 않다. 이제 집안의 식물에 대해서 살펴보자. 사

무실이나 집 안에는 선인장을 놓는 것을 피하는 게 좋다. 아름다운 선인장의 꽃이 아무리 유혹을 하더라도 치명적인 가시가 만들어내는 나쁜 에너지를 받으면 안 된다.

육아의 안정성에 앞서서 집이나 사무실(창문턱과 선반 위)에 놓으면 선인장의 가시들은 스스로 독화살이 되어 집을 보호하기보다는 공격하는 사치(shar chi-날카로운, 나쁜)를 만들어낼 것이다. 대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질병과 불행과 손실을 일으키는 독성의 작은 시초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선인장은 그들이 보초와 같은 보호자의 상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므로 집이나 사무실 입구나 밖에 두는 것이 좋다. 가시는 가정이나 사무실에 들어오는 사치에 대항하는 효과적인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놓아두는 위치에 따라 안과 밖

의 기능이 달라지는 경우이다.

분재는 성장이 저해되었음을 암시하므로 좋은 풍수를 나타내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예술적으로 다듬어진 관목과 식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꼬아놓은 분재를 말한다. 예술적 가치가 있는 관목은 가정과 사무실에 큰 에너지를 가져다줄 수 있는데, 인위적으로 잘 키워져 왔고, 보통 많은 돈을 들여 가치가 있는 대형 나무들을 언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도 사람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의미하므로 관하고 싶지는 않다. 사업적으로도 해롭다. 만약에 분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집이나 정원에 그것들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 집이나 정원의 나무 구석에 그것들을 두지 말 것을 강력히 권한다. 가급적 북쪽에 위치하면 좋다.

THE BEST TRAVEL FOR YOU!!

여행의 모든 것
굿트래블에서
당신과 함께합니다

굿트래블 1588-6861